



인공지능 알파고(AlphaGo)와 보험산업의 미래

김석영 연구위원, 이선주 연구원

요약

■ 최근 인공지능인 알파고(AlphaGo)가 세계 최정상 바둑프로기사인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결에서 승리를 하여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. 인공지능 컴퓨터는 이미 체스경기와 퀴즈쇼 프로그램에서 인간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금융산업과 보험산업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음. 장기적으로 빅데이터와 함께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이 보험요율 산출, 언더라이팅 그리고 판매채널에 도입 될 경우 보험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.

■ 최근 인공지능인 알파고(AlphaGo)가 세계 최정상 바둑프로기사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결을 통하여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.

- 바둑은 거의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 때문에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러한 예측이 무너짐으로써 인간의 지능 관련 두뇌활동을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함.
- 인공지능 컴퓨터는 이미 체스경기와 퀴즈쇼 프로그램에서 인간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였음.
 - 1996년 IBM의 슈퍼컴퓨터 딥 블루(Deep Blue)는 세계 체스 챔피언과의 시간 제한이 있는 정식 체스 대국에서 승리함.
 - 2011년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(Watson)은 미국의 제퍼디(Jeopardy) 퀴즈쇼에서 74회 연속 우승한 켄 제닝스(Ken Jennings)를 누르고 우승함.
 - 왓슨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하는 딥 블루와 달리 복잡한 영역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음.

■ 최근에는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금융산업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보험산업에도 상품 판매 및 언더라이팅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음.

- 골드만삭스는 금융시장 분석을 위하여 금융분석 인공지능 프로그램 켄쇼(Kensho)를 도입하였음.

- 증권가에는 이미 로보어드바이저(Roboadvisor)가 등장하여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매매하고 관리하고 있음.
 -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자산을 운영·관리해 주는 자산관리서비스로 핀테크의 일종임.
- 소비자가 보험 플랜을 요청하면 다수의 설계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입찰 완료 후 컴퓨터 알고리즘이 보험상품을 분석하여 가장 좋은 플랜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가 현재 활동 중임.
- 국내의 한 보험회사는 부담보 동의서 출력, 구체적인 서류내용 안내, 언더라이팅 결과 제공 등의 업무를 자동처리하는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4월 중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짐.
 - 기존의 자동언더라이팅 시스템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청약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해서 자동으로 심사되고 나머지는 언더라이터가 직접 처리하였음.
 - 새로이 시작되는 자동언더라이팅 시스템은 보다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언더라이터의 손을 거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음.

■ 장기적으로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회사들은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을 보험요율 산출, 언더라이팅, 그리고 판매채널 등에 도입할 것이며 이는 보험산업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됨.

- 알파고나 켄쇼 같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보험계약자별 보험요율 산출이 가능
-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시간 단축, 비용 절감 및 언더라이팅 일관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자동언더라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전망
-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이 접목된 온라인 또는 앱 기반의 판매채널은 상품판매뿐만 아니라 보험요율 산출, 언더라이팅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
 - 왓슨처럼 사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컴퓨터 앱이 출시되어 설계사처럼 계약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할 것으로 예상
- 대규모 전속판매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시장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
 - 고비용 설계사 중심 판매채널에서 다양한 저비용 판매채널로 전환될 가능성 **kiri**